

# The Journey of My Life



**\$35, TKD uniform,  
and strong spirit to fuel  
the journey. This is the  
story of Jung Woojin.**

외로운 이방인의 길 -나홀로 가다.  
주머니에는 단돈 35달러, 도복  
한 벌 어깨에 맨 채 태평양을  
건넜다. 1971년  
불굴의 투지와 맨주먹  
하나만 믿고 미국 생활  
을 시작했다.